

# 해외石油뉴스

## 佛 石油会社, 원유과잉으로 고민

프랑스의 政府投資石油会社인 Elf와 CFP는 長期契約에 의거 導入하는 原油가 넘쳐 흐르고 있으나 政府는 契約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고민중.

Elf의 사장도社長은 “政府는 과잉원유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마시란 말인가?”라고 푸념하고 있으나 對外貿易相은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契約을 파기할수 없다”고 일축.

CFP의 한 간부는 長期契約은 原油의 供給確保가 최대의 관심사였던 70年代에 이라크, 사우디 및 멕시코와 맺은 것이라고 밝히고 이 契約이 現在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준수하는 수 밖에 별도리가 없다고 하소연.

## 美国, 리비아原油輸入 중단할지도

美国은 查리비아 油田設備 禁輸措置와 아울러 리비아産 原油의 輸入禁止措置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最終的인 決定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러한 決定이 임박한 것 같다고 政府消息通이 말했다.

“美国은 국제테러와 파괴행위에 對한 리비아의 不法的인 支援을 우려하고 있다”,고 國務省代弁人이 말했다.

한 백악관보좌관은 “리비아原油輸入禁止를 포함한 여러가지 代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日, 이라크와 하루11万배럴 導入 계약

日本은 이라크와 하루 11万배럴의 原油導入契約을 “파격적인 特혜조건으로”체결했다고 業界消息通이 전했다.

이라크는 地中海般積原油에 부과하는 배럴당 75센트의 送油管使用料를 면제해 주고 유전소기간

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함으로써 日本은 배럴당 1달러의 利益을 보게 된다고 消息通이 말했다.

그외에 이라크는 日本의 原油輸入業者들이 이라크産 原油를 西区石油市場에서 스와프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同消息通은 밝혔다.

## 튀니지아, OAPEC 加入될듯

튀니지아가 앞으로 열릴 다음 OAPEC 關係會議에서 會員國으로 加入될것이 확실하다고 OAPEC 事務總長이 말했다.

지난해 12月 아부다비에서 열린 關係會議에서 리비아가 反對함으로써 튀니지아의 OAPEC 加入이 좌절되었으나 그후 두나라 사이의 關係가 개선되었으며 부르기바 튀니지아大統領은 튀니지를 방문해 주도록 리비아의 카다피大統領을 초청한바 있다.

## 英国, 查이스라엘 原油販賣 거부

英国 에너지省은 查이스라엘 原油販賣 拒否決定을 공식 發表했다고 이스라엘消息通이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英國에 原油販賣를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販賣剩餘分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엑슨, 日産 30万배럴精製施設 폐쇄

美国의 엑슨石油会社는 石油製品의 需要減退에 따라 日産30万배럴규모의 精製施設을 폐쇄하였다.

엑슨의 메이너社長은 現在의 石油製品市場狀況을 감안, 앞으로 石油精製業을 축소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또한 注油所業에서 손을 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 同社 總注油所の 11%에 해당하는 750個所를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石油뉴스

## EC諸国 올해도 石油需要 沈滞

EC諸国の 올해 石油消費는 前年度の 4億5千万톤에서 4億4千8百万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予想된다. 지난해에는 80年对比 8.6% 減少했었다.

한 EC報告書에 의하면 天然가스消費는 81年对比 1.2% 늘어나 석유환산 1億6千3百万톤에 達할 것으로 展望했다. 天然가스도 지난해에는 前年对比 4.9가 줄었었다.

한편 總에너지消費중 石油의 比重은 81年 50%에서 82년에는 49.2%로 낮아지는 반면 天然가스는 81年の 17.8%에서 올해에는 17.9%로 늘어날 것으로 同報告書는 展望했다.

올해 EC各國의 GNP成長率은 2%, 總에너지消費量은 1.2% 增加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 두 北海油田서 原油生産개시

英國領 北海의 두 油田에서 하루 3万3千배럴의 原油를 生産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英國은 하루 190万배럴을 生産할수 있는 産油國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하루 3万배럴을 生産하는 홀마油田은 1985年에 하루 18万배럴로 最高水準에 達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현재 하루 1万5千배럴을 生産하는 코모런트油田도 1986년에는 하루 最高 18万 배럴을 生産할 계획이다.

## 베네수엘라 原油生産 격감

베네수엘라의 最近 原油生産量은 하루163万배럴로 1981年末보다 무려 50万배럴이 줄었다. 1981年中 年平均 하루 生産量은 201万8千 배럴이며 輸出実績은 하루 175万배럴 水準이었다.

最近의 輸出量은 하루 153万4千배럴로 前年

平均对比 약 22万배럴이 減少했으며 今年度 輸出目標量에 比해서는 약2万6千배럴이나 낮은 水準이다.

이러한 生産量의 減少는 輸出需要減退와 重油市場不況에 따른 国内精油所의 가동율저하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는 对照的으로 휘발유는 国内供給이 딸려 도리어 輸入하여야 하는 實情이다.

## 合成燃料, 2,000年이전에는 큰 進展 없을듯

에너지價格의 下落과 需要減退로 인하여 大規模의 合成燃料의 개발은 2000년 이전에는 큰 進전이 없을 것이라고 텍사코의 맥킨리會長이 展望했다.

맥킨리會長은 제9차 에너지技術會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代替에너지의 供給은 不確實性이 많다고 보았다.

## 2000년까지 原油價格安定;

### 체이스맨 하탄銀行 전망

지난 72년부터 80년까지 年平均 29%씩 上昇한 世界原油價格이 앞으로 2,000년까지는 年平均 2.5%씩 上昇할 것이라고 체이스·맨하탄 銀行이 展望했다.

이 報告書는 또 2,000年の 原油價格은 80年달러가격으로 배럴당 53달러가 될것이라고 展望하고, 75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고 予想했다.

同銀行의 추정에 의하면 85年 原油價格은 1980年불변가격으로 배럴당 33달러, 1990년에는 41달러가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